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5.(수) 14:00 배포 2026. 11. 25.(수) 06:00

우리 차 가치를 높이고 K-Tea의 미래를 연다
제2차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27~'31) 발표

- 공동영농과 생산성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 말차시장 중심으로 K-Tea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제품개발과 산지 체험으로 국산 차의 소비·문화 확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말차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육성, 차 소비·문화 저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발표하였다.

국내 차 재배농가는 2017년 3,406호에서 2024년 2,683호로 21.2%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재배면적도 3,050ha에서 2,551ha로 16.4% 줄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기반은 약화되고 있지만, 최근 말차 음료와 디저트 소비가 늘고 수출도 증가하면서 차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열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1년까지 차 재배면적을 2,500ha 이상 유지하고, 생산량은 3,685톤에서 4,500톤으로 확대한다. 또한, 차 수출액은 2,075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로, 국민 1인당 연간 차 소비량은 95g에서 120g으로 높일 계획이다.

첫째, 차밭 공동영농과 기계화로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❶ 다원별 맞춤 관리와 산지별 계획생산

차밭의 생산성과 관리상태, 농가의 영농 지속의향을 조사해 차밭별 관리유형*을 설정한다. 산지별로는 생산량·가공능력, 실제 구매 수요를 반영한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해 생산과 판로를 연계 관리한다.

* ❶정상관리, ❷정비, ❸공동관리, ❹임대, ❺위탁 등 5가지 관리유형으로 설정

❷ 공동영농으로 차밭 활용도 제고

2027년부터 수요기업 중심의 농가 조직화를 통해 차밭을 함께 관리하는 공동영농 시범사업(약 30억원 규모)을 추진한다. 시비, 전정, 차광, 수확 등 주요 농작업을 공동 수행하여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수요에 맞춘 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한다. 청년농에게는 임대형 다원과 현장실습, 재배·제다 교육을 연계해 차산업 진입 기회를 넓힌다.

❸ 기계화와 우량묘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기계화에 적합한 평지형 다원을 조성하고, 작업로·관수시설·방상팬 등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한다. 평지에는 승용형 농기계를, 경사지에는 소형·경량 장비를 개발·보급해 노동 부담을 낮춘다. 기계채엽과 기후변화에 적합한 우량묘 공급은 연간 4만주에서 6만주로 확대한다. 찻잎은 수확 시기와 품질에 따라 용도를 다양화한다. 품질이 우수한 봄철 찻잎은 고품질 프리미엄 차로, 이후 수확한 찻잎은 일반 차 제품과 식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가공 기술을 보급해 차밭의 활용도와 농가 수익을 높인다.

둘째, 말차 시장을 K-Tea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 세계 말차시장은 2025년 51억 달러에서 2033년 89억 달러로 약 74% 성장할 전망이며, 우리나라 녹차 수출액도 2024년 595만 달러에서 2025년 866만 달러로 45.5% 증가

❶ 계약생산으로 농가 판로와 원료 공급 안정

생산자와 가공·수요기업 간 계약생산*을 도입해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은 품질이 균일한 원료를 공급받도록 한다. 2027~2028년 시범운영 뒤 성과를 점검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생산량, 품질규격, 납품시기·구매조건을 미리 정하고 이에 따라 생산·공급하는 방식

❷ 말차 가공능력 확대와 제품 다변화

2027년부터 2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해 주산지 2개소에 말차 가공라인을 구축하고, 증열·건조·선별·저온 미세분쇄 등 핵심설비*를 확충해 처리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말차뿐 아니라 가루녹차·호지차·발효차 등 다양한 차 제품과 기능성 소재의 연구·개발도 지원해 다양한 소비 수요에 대응한다.

말차 가공	차광재배 → 증열 → **유념(비비기) 없이 건조** → **줄기잎맥 제거** → **저온 미세분쇄** → 포장
잎차 가공	비차광재배 → 덖음 또는 증열 → 유념(비비기) → 건조 → 선별·포장

* 말차 가공시설 확충으로 연간 국내 생산량을 650톤 수준에서 약 800톤까지 확대

❸ 품질·안전관리와 수출지원 강화

말차의 정의와 색상·입도 등 용도별 거래규격을 단체표준으로 새롭게 제정한다. 생산부터 출하까지 안전성 검사와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국산 차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수출기업에는 국가별 표시·통관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인증 취득, 해외박람회 참가와 구매처 발굴을 지원한다. 또한, 재외공관·한국문화원·K-Food 행사와도 연계해 K-Tea를 홍보하고, 시장성이 높은 1~2개 국가에는 체험·홍보와 수출상담을 결합한 현지 거점을 시범 구축·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제품과 산지 체험으로 국산 차 소비와 차문화를 일상으로 확산한다.

❶ 청년층이 즐기는 다양한 제품 개발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말차 음료·디저트, 바로 마실 수 있는 즉석차 음료(RTD, Ready to Drink) 등 간편하게 즐기는 차 소비가 늘고 있다. 이러한 소비 변화*에 맞춰 식품과 기능성 소재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카페·식품기업의 판로 확대로 연결한다.

* 20대 건강 목적의 차음료 선택 비중 : 21.8%(2023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aT)

❷ 시음·체험으로 생활 속 차 소비 촉진

매년 5월 25일 ‘차의 날’에는 유공자 포상, 학술·국제교류와 소비촉진 캠페인 등 국민 참여형 행사를 추진한다. 공항·대학가 등에서 시음회와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온라인 콘텐츠와 제품 구매를 연계해 소비자가 국산 차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기회를 넓힌다.

❸ 전통 잎차의 가치 차별화와 차문화 확산

전통 잎차는 산지·품종·수확시기·제다인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산지와 제다기술의 특성을 살린 제품으로 차별화한다. 원료선별과 위생관리, 포장을 개선해 소비를 늘리고,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보성·하동·제주 등 주산지의 차문화 자원을 연계한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한다. 전통 제다기술은 체계적으로 기록·전승하고, 유튜브·웹툰 등 친숙한 콘텐츠와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 K-Tea 아카데미를 활용해 차문화를 쉽고 친근하게 알릴 계획이다.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판매·수출입을 아우르는 차산업 전주기 통계를 구축한다. 민·관이 참여하는 차산업발전협의체를 반기별로 운영해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차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말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성장 가능성을 농가소득과 수출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산 차가 국민의 일상에 자리 잡고 K-Tea가 세계시장에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제2차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 주요 내용(요약)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배민식 (044-201-2231)
	원예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수현 (044-201-22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제2차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 주요내용(요약)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차산업법에 따른 **'27~'31년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말차시장 성장**과 **소비구조 변화** 등 산업 여건에 대응한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

* 친환경 재배 확대('25년 기준 95%), 차문화 교육·축제 체험 확대 등

〈 제2차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경과 〉

- 2차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방향 간담회(지자체·연구기관·생산자, 7.10)
- 차 산업동향 및 수출촉진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오설록·누보, 7.24, 7.31)
- 2차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안) 의견수렴(2회, 9.9 제주, 9.14 보성·하동)

▲ (9.9) 생산자·산업계·지자체·연구기관 참여 **차산업발전협의체** 운영 ▲ (9.14) 가공시설·농협·제다업체 참여

2 산업 동향 및 전망

○ **재배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규모화·기계화 다원**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간 3,700톤**'17년 대비 '24년 3,685톤(8%↓) **수준** 유지

* (재배면적) '17년 3,050ha → '24년 2,551ha (16%↓)

○ 국내·외 **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화·노동력 부족**과 **재배면적 감소, 가공시설 부족**으로 **안정적 공급**에 **한계**

○ **전통 잎차**는 우수한 품질과 문화적 가치에도 **다도 중심**의 전통적 이미지로 **일상적인 소비 확산에 어려움**

○ 20·30대 중심의 **말차라테**·디저트·즉석차음료(RTD) **소비 증가** 추세

⇒ **말차** 등 성장품목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전통 잎차**의 품질 차별화와 **일상 소비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

3 제2차 기본계획 비전 및 성과 목표

비전	지속가능한 생산기반과 말차산업 육성으로 도약하는 K-Tea		
목표	차 생산량	('24) 3,685톤 ⇨	('31) 4,500톤
	차 수출액	('24) 2,075만$ ⇨	('31) 3,500만$
	1인당 차 소비량	('24) 95g ⇨	('31) 120g

4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

① 기존 차밭의 생산성을 우선 높이고 정비·공동영농 등을 통해 생산성 우선 제고
② 말차의 원료 생산과 가공·수출 기반을 확충하여 산업 부가가치 제고
③ 전통 잎차의 품질 차별화와 소비방식 다변화를 통해 차문화 대중화 추진

가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 **(생산기반 유지) 차밭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정비·공동관리·임대·위탁 등 **다원별 관리방향 설정 → 노후 다원 정비** 및 유휴화·폐원 방지

- 경사지용 소형장비 보급, 기상·병해충 예찰 정보제공 체계 구축

○ **(공동영농 지원)** 규모화, 기계화, 소득 배분형 **공동영농 시범사업** 추진

○ **(계획생산)** 산지별 생산량·가공능력·구매수요를 반영한 **생산계획 수립**

○ **(통계·협업강화)** 차산업의 **통계 기반 구축**과 **차산업발전협의체 구축**

☞ **수출·가공 수요와 연계한 계약생산형 공동영농 지원사업 추진('27~, 약 30억원)新**

나 말차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육성

○ **(원료확보) 기존 다원**을 **말차 원료 생산다원**으로 전환, **표준재배기술** 보급

- 생산자와 가공·수출업체 간 **계약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원료 조달

○ **(가공고도화)** 말차 전용 가공라인 구축 등 **가공 시설 현대화** 추진

○ **(수출지원)** 주요 국가별 **수출안내서** 지속 제공, **수출애로 상담 지원, 식품안전 인증 취득비 및 현지유통망 개척 지원**

☞ **① 말차 가공라인 신규 100억원(2개소) 반영新, ② 식품안전인증 취득비 지원('27~), ③ 현장유통망 개척사업(국제박람회 참가, 글로벌 K-푸드페어, 바이어거래 알선) 지원('27~)**

다 차 소비 · 문화 저변 확대

○ **(홍보강화) 공항·대학가** 팝업스토어 운영, **차의 날**(5.25) **캠페인, 농촌관광활성화사업** 등 생활·관광 속 K-Tea 체험·홍보 확대

○ **(차문화 확산) 전통 제다기술 조사·기록, 프리미엄 차 육성지원,** 차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통차 가치 및 판로 확대

☞ **① '차의 날' 연계 K-Tea 홍보 신규예산 2억원 반영新, ② 지역단위 농촌관광활성화사업 지원(국비 6천만원, '27~'28), ③ 외국인 대상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 운영('27~)**